# 짜릿한 안수기도

임 락 경 (목사, 강원 화천 시골교회)

평창에서 정년 퇴임 후 농사를 짓고 계신 조화순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갑자기 목사님이 안수를 할 때 상대방의 전신에 짜릿한 느낌이 온다고 한다. 그리고 목사님 역시 축도를 하거나 기도를 하실 적에 본인도 전신이 손끝까지 짜릿한 느낌이 온다고 하신다. 또, 다른 사람과 악수를 하거나 심지어 어린 아이들이 귀여워서 안아주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 갑자기 도망치고 곁에 오지도 않는다고 한다.

이런 일이 갑자기 생기니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어떤 증세냐는 전화문의였다. 나의 대답은 "목사님께서 원래부터 영발이 쎄셔서 성령의 기운이 전달된 것이니 그렇습니다"고 했다. 목사님 왈, "나는 축도를 하면 언제나 전심전력해서 하는데 축도를 하고 나면 언제나 전신에 기운이 모아져 손끝까지 짜릿하고 축도를 하고 나서도 한참동안 성령의 기운이 감돈다"고 하신다. 어떻게 보면 부럽기도 하고 나는 언제나 목사님처럼 전심전력해서 축도를 해주고 안수기도도 해주나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언제나 하는 축도지만 그러한 느낌을 못 느껴본 자신을 반성 해보고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했다. 다른 기도도 아니고 안수나 축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해

서 전해주는 기도이니 만큼 전신전력해서 삿된 생각 다 버리고 온 힘을 다 모으면 그처럼 기가 흐를 것이다. 나는 기도 할 적에는 그런 대로 지나칠 수 있으나 축도를 하고 나면 회개도 해보고 반성도 한다. 전신에 짜릿한 느낌이 오도록 축도를 못해주니 그렇다.

그런데 몇 일 후 또다시 전화가 왔다. 그 짜릿하고 영발이 쎈 원인을 알았다고 하신다. 얼마 전 젊은 목회자들이 은퇴한 목사님을 도와 드리려고 전기 온돌침대를 침실에 설치해 드렸다. 목사님 안방에도 설치하고 또 따뜻하게 데워진 옥돌침대라서 옛날에 유럽의 국왕들처럼 영국의 여왕들처럼 호강을 느끼며 주무신 것이다. 그렇게 자고 나면 온종일 피곤하기는 해도 '영발이 쎄지고', 외출해서 다른 곳에서 자면 그런 기가 없고 그냥 무덤덤하기는 해도 전신에 피곤함은 없다고 하신다. 몇 일 사이에 몸이 점점 피곤해지고 전류는 점점 흘러 잠자리를 옮겨보니 괜찮았다는 것이다.

거금을 들여 설치해준 후배 목사들에게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을 저버릴 수는 없으나 몸이 감당하기 어려워 옥돌침대를 밖으로 꺼냈는데 그 뒤로 그 짜릿한 영발을 느끼시지 못한 것이다. 그 후로 목사님께서 우리 집에서 한 달간 계시게 되었다. 나더러 이번 짜릿한 안수기도에 대해서 꼭 글로 쓰라는 지시를 하였다.

지난 주에 김두봉 장로 집에 갔었다. 나는 지난해에 전통 한옥집을 지었고 김 장로는 저 지난해에 지었다. 모처럼 일생에 큰맘 먹고 지은 집이라서 구경꾼들도 있으며 또 자기들도 그렇게 지으려고 견학 차 찾아온 이들이 많아서 안내 차 자주 갔었다. 집짓기 전부터 의논도 하고 목수도 소개해 주고 수시로 찾아가 학교처럼 배우기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했었다. 그렇게 자주 갔으나 안방에 들어가 앉아본 것은 이번에 처음이었다. 안방에 앉아보니 좁은 방에 옥돌침대가 방의 절반을 차지하고 누워있었다. 나는 그 침대가 집과 어울리지를 않아 보였다. 집은 순전히 한옥 집이었고 실내장식마저 한옥으로 했는데 웬 고급침대라서 외국에 온 기분이었다. 또한 그 분은 나보다 앞서서 중한 병을 앓았고 폐 수술을 4번이나

했었다. 지금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겨우겨우 지탱해서 살고 있다. 그나마도 유기농업을 해서 자연식 때문에 유지하고 있다. 그도 역시 그 침대에서 자고 나면 피곤하다고 했다. 나처럼 느낌이 둔한 사람은 잘 모르지만 예민한 사람들은 금방 안다. 왜 사용하지 않는 침대를 안방에 모셔두느냐 했더니 설치해준 사람의 성의와 은혜를 져버릴 수가 없어서 안방에 모셔 둔다고 한다.

신경이 둔한 내 느낌으로는 이렇다. 보일러 물을 데울 때 전기로 데우느냐 기름으로 데우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전기로 끓여서 보일러 호스로 지나가면 피곤하고 기름으로 데우면 좀 낫다. 나무로 물을 데우면 아주 몸이 가볍다. 무슨 연료로 데우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다.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 모였을 적에 이런 말을 꺼냈더니 모두가 그렇다는 것이다.

이번 정농회(正農會) 연수회 때 아·태 의과학재단 김학재 회장의 강의를 들었다. 주로 전기의 피해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다. 전기는 가까이 안 할수록 좋은 것이다. 전화기도 될 수 있으면 짧게 빨리 끊는 것이 좋다. 옛날에는 전화국마다 '통화는 간단히' 라는 구호가 크게 써 있었다. 나는 전화 할 적마다 오해도 많고 충고도 많았다. 대답만 하고 너무 빨리 끊는다는 것이다. 조화순 목사님 역시 그런 충고를 하신다. 나를 알기 때문에 그런 대로 지나갔었지 그렇지 않으면 멀어질 뻔했다고 하신다. 앞으로도 '통화는 간단히' 다. 군대에서 2년 동안 전화 교환 근무를 했는데 신속히 전할 말만 전하고 끊는 것이 예의고 크나큰 국익이 된다고 생각했다. 휴대전화야 말로 진짜로 정말로 통화는 간단히 해야한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신다면 성경에 기록했을 것이다. 휴대전화는 간단히 반말로 끝내라고. 또 전화 사용료에서 17%가 미국으로 간다니 더 그렇다. 휴대전화의 전자파는 뇌를 관통해 지나간다고 한다. 외국의 광활한 평야 지대에서는 전파가 약해도 잘 터지지만 우리나라는 강산이 너무 많아 높은 주파수를 써야 된다고 한다. 안 터지면 그대로 안 터지도록 놔두면 되지만 팔아먹으

려고 전파가 뇌를 스치고 지나가든 심장을 지나가던 주파수 올려서 만들어 팔아먹으면 그만인 것이다. 국민건강 상관없이 돈만 벌면 되는 것이고 또 괜히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심장이 뛰고 귀아프고 눈 아프고 병원에 가면 병원비만 해도 몇 십, 몇 백만 원이다. 그리고 병명 몰라도 돈은 주어야 된다.

휴대전화 많이 쓰고 안수하거나 받아도 정신이 몽롱해서 이 세상 것은 잊고 황홀해지기도 한다. 하루에 한번 정도는 휴대전화 없애려는 맘도 먹어본다. 그러나 활동하다보면 공중전화기가 점점 없어져서 전화 걸 곳이 없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공중전화가 있기는 있으나 꼭 한 쪽에 찾기 힘든 곳에 멀리 따로 설치해 두었다. 제일 복잡한 곳에 설치해야 될 전화기 설치대가 제일 한적한 곳에 있다. 어느 공공건물에 가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어느 우체국에는 공중전화기가 한대 있는데 그나마 고장난 곳도 있었다. 공중전화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면 자기 휴대전화기 쓰라고 내어준다. 휴대전화기 안 쓰려고 했는데 그런다. 휴대전화기는 목에 걸고 다니면 안 된다. 실을 통해서도 전파가 흐르기 때문이다. 귀걸이하고 휴대전화기 사용하면 전파가 그 쇠붙이를 통해 더 강하게 뇌에 영향을 미친다. 휴대전화기는 심장에 매달고 다니면 심장 나빠지고 장에 가까우면 장이 나빠진다. 제일 좋은 방법은 발목에 매달고 다니던지 더 좋은 방법은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것이 좋다. 없으면 더 좋다.

영발 쎄게 짜릿한 안수하려면 전기 침대에서 자고 휴대전화 목에 걸고 다니면서 고성능 라디오 귀에 꽂고 다니다가 성능 좋은 확성기 사용하면서 전기난로 옆에서 안수기도 해주면 전신이 짜릿하면서 세상과 멀어지면서 둥실둥실 떠다니는 기분이 든다.

원자력 발전소를 지었으면 핵폐기물이 나오기 마련이다. 언젠가 대만에서 핵폐기물을 북한에다 돈을 주고 묻는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반대 시위를 한 적이 있었다. 핵폐기물은 대만 것을 북한에

다 묻어도 안 되고 영광에서 발생된 것을 부안에다 묻어도 안 된다. 그렇다면 부안에 설치할 핵폐기장을 우리 화천에 갖다 묻어도 안 된다. 서울대학 교수 몇 명은 서울대학내에다 설치하자는 제의를 했다. 그것은 서울대학생들이 허용을 않고 시위를 할 것을 미리 짐작하고 했으나 서울대학생들보다 관악구청 주민들이 더욱 반발을 했었다. 처음부터 시위할 줄 모르는 화천에 설치했더라면 지금쯤 다 완공했을 것이다. 부안이란 곳은 1970년대에 농민시위를 많이 했었던 곳이라 시위 경험 많은 인사들이 많은 곳인데 하필이면 부안에 정한 것은 산자부에서 선택을 잘못한 것이다. 그들은 진짜 결사반대(決死反對) 한다. 목숨 걸고 싸운 지역이다.

시위하고 있는 지금도 원자력 발전소는 가동되고 있고 핵폐기물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글을 쓰고자 한 것은 핵폐기장 설치 반대 운동하는 서울의 대학생이 제일 많이 모인 대학로가 밤이 없는 곳이다. 대학로에 전기부터 끄고 반대시위를 해야 할 것이다. 부안에서도 밤에 가로등 먼저 끄고 어두운 곳에서 시위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 곳은 주로 그렇게 한다. 이 글을 새벽에 전깃불 켜고 쓰다 보니 미안하다. 지금 불을 끄고 날이 새면 이어서 쓰련다.

어제 밤에 이웃마을 친지 집에 저녁 먹으러 갔다. 주방에서 식사를 하는데 내 뒤 머리 위에 전자 렌지가 있었다. 그 옆으로 이름 모를 전기제품이 하나 있고 그 곁에 김치냉장고가 있다. 이것이 한쪽 면이고 다른 벽으로 냉장고가 큰 것이 차지하고 다시 옆으로 전기밥솥이 있고 또 싱크대 위에 믹서가 있고 그 위에 환풍기가 있다. 또 다른 마지막 벽에 세탁기가 돌고 있다. 세탁기 돌고 전자렌지 가동하고 냉장고 울고 또 다른 냉장고 울고 전기밥솥 김이 풀풀 나고 환풍기 돌고 바닥에는 전기장판이 따뜻하고 밖에서는 보일러 모터 돌고 상수도관 모터 돌아간다. 4평 정도 되는 주방에 이렇게 많은 전기제품을 쓰고도 살아 있다는 것이 기적이다. 피 말리기 작전이다.

지금이 2월이다. 2월 달에는 냉장고가 전기냉장고가 아닌 하나

님이 내려주신 커다란 냉장고가 밖에 있다. 냉장고 크기가 3000리다. 중국서 재어보니 9만리다. 그 큰 냉장고 놔두고 겨우 2자×3자 짜리 가지고 되겠는가. 같은 채소라도 자연 상태에서 시원하게 보관되어 있는 것과 냉장고에서 냉장상태로 시원하게 있는 채소는 자연 상태에서 있는 채소에 비해서 금방 시들고 물러진다. 그것은 생명체와 채소성분이 죽어 있기 때문이다. 물도 마찬가지고 전기밥솥에서 꺼낸 밥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전기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일까? 그것은 아니다 무엇이든 적당히 사용하면 득이 되고 지나치면 독이 된다. 전기제품이야말로 적당히 사용하면 우리 인류에 편리한 기구이나 지나치면 득보다는 실이 많다. 우선 전자제품 사용에서 지나치다보면 건강을 해치게 된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둔하게 태어나서 잘 모르지만 예민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느낌으로 알 수 있다.

일본에서 어떤 여인을 만났는데 그분은 선천적으로 전기 감지를 하고 있는 이였다. 전자제품 곁에만 가면 전기가 감전이 되는 체질인데 고압선 곁에는 50m 내로 접근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전화기는 30cm, 라디오도 30cm, 형광등은 2m, 백열등은 1m 이고 전철은 탈 수도 없고 택시 탈 때 앞자리는 못타고 뒷자리라야 타고 다닐 수 있다한다.

내가 어릴 적에는 어른들이 사진 찍으면 귀신이 혼 빼간다고 사진을 못 찍게 했다. 물론 그 때에는 사진 값이 비싸서 철없는 이들이나 비싼 돈주고 사진 찍었지 서민들은 찍을 생각 못했다. 찍으러 다니는 사람은 귀신이 혼을 빼 간거나 마찬가지였다. 요즘도 비싼 사진 많이 찍으면 제 정신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은 옛날 사진기에 비해서 사진 기술이 발달해서 뼛속까지 내장까지 찍어 나온 사진이 있다. 제일 자주 찍은 사진이 주로 폐사진이다. 이 기계가 처음 나올 때 의사들이 자주 찍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너무 사진기를 기피하기에 괜찮다고 해서 지금은 서슴없이 수시로 찍지만 이것도 역시 자주 찍으면 좋지 않을 것 같다. 더욱이 드러누워

서 원형사진기에 전신이 들어가면서 단층사진을 찍게 되면 우리 몸 전체가 난도질당하고 나온 셈이다. 전자파가 우리 세포를 모두 한번 난도질해서 스치고 지나가야 사진이 나온다.

이제 들고 다니는 전화기 이야기다. 춘천에서 우리 집을 자주 찾아와 정기적으로 봉사를 해준 여인이 있다. 언제인가부터 머리에 통증을 느끼더니 어느 한 부분이 쪼개질 것같이 쑤신다고 한다. 눈도 뜨기가 힘들고 눈알이 표현할 수 없이 까부러진다며 귀도 그는 잘 안 들릴 때가 있다며 해결책을 요구했다. 나는 어떤 병이든 신경성으로 처방하지 않는다. 신경성 때문에 이러한 증세가 생겨나면 6·25 때나 70년대에는 모두가 신경성으로 그와 같은 병을 앓았어야 하나 6·25 때 그런 병은 없었다. 약 1년을 두고 해결책을 강구했으나 해결이 되지를 않는 것이다. 원인을 찾아 좁혀나가다 보니 들고 다닌 손전화기까지 의심하게 되었다. 손전화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도 역시 단층 촬영기처럼 전자파가 뇌를 스치고 지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반대쪽에 쇠붙이가 있으면 그곳에서 전자파를 다시 전달시켜 스치고 지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먼저 귀걸이를 빼고 전화기를 사용하도록 권해보았고 약 10일 전부터 전화가 오면 안경을 벗고 전화를 받아 보라고 했더니 머리 아프고 심장이 뛰는 증세가 없어졌다고 한다. 5층 지하에서도 전파가 터지고 전철 안에서도 통화가 거침없이 잘되는 고성능 휴대전화기 될 수 있으면 꺼놓고 부득불 사용할 적에는 통화는 간단히 해 주시기를 전심으로 전심전력해서 말한다.

지난 번 어떤 못된 강사가 그러는데 자주 쓰는 전자제품 중에서 제일 좋지 않는 제품이 전자렌지라고 한다. 이 렌지는 문을 여는 사이에 흉부 엑스레이 사진 한번 찍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한다. 이러한 저러한 전기만 절약한다면 원자력 발전소 가동 안 해도 되겠고 부안에 핵폐기장 설치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 같다. 農